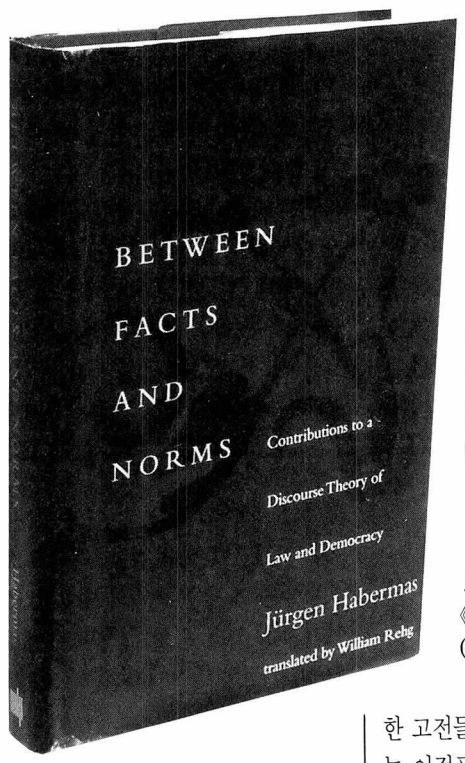
매력적인 전망 담은 21세기의 고전

하버마스 지음 《사실성과 타당성》

박영도
서울시립대 강사·사회학



새로운 세기를 앞둔 우리 시대에 어둠을 밝혀줄 이정표는 무엇일까. 하버마스는 이 책에서 의사소통의 자유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민주적 사회복지국가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사회운동의 잠재력을 믿는 이들에게 이 책은 매력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J.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Suhrkamp, 1992)

근대에 세번에 걸친 민주주의 혁명의 물결이 있었다. 프랑스혁명에서 정점에 이른 정치적 해방운동의 물결과, 러시아혁명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해방운동의 물결, 그리고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물결이 높아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때마다 '어디로부터?'는 비교적 분명하지만 '어디로?'는 항상 불투명한 어둠에 싸여 있게 마련이다. 근대 사상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고전들이 고전인 까닭은 그 어둠을 밝히는 이정표로서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어둠을 밝혀줄 이정표는 무엇일까? 그 유력한 대답의 하나를, 출간된 지 얼마 안되어 이미 위대한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법의 중요성 복권

근대사회는 개인들의 자유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대단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자유와 강제의 매개로 이해되는 법이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지만, 그러나 법이 진정 자유의 제도적 보장이 되려면 만인이 자신의 삶을 규제하는 규칙의 저자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가 법원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법이 정당성을 획득하고, 정치권력도 정당한 법의 형식에 따라 행사될 때 정당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근대사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념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시장의 사회적 권력과 관료적 행정권력에 의하여 왜곡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철학적 담론에 의하여 잘못 해석되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이성과 자유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법원리를 재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유의 법적 제도화로써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이념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몽의 기획을 완수하려는 하버마스의 정치적 프로그램의 골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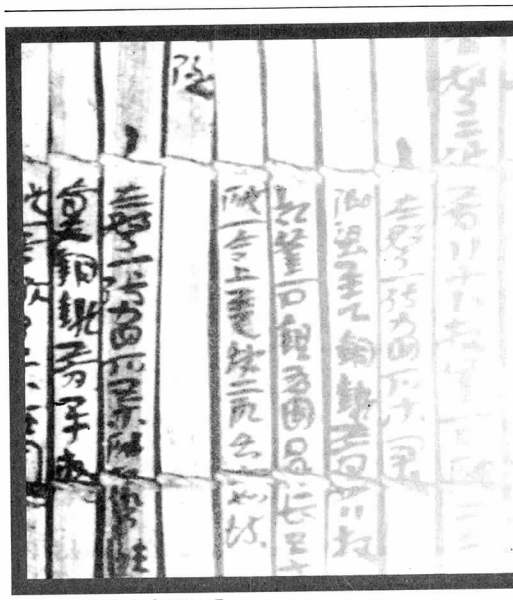
이 기획의 몇가지 특징을 본다면, 우선 그동안 진보적 사회사상에서 주변으로 밀려났던 법의 중요성을 복권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혁명이 보여주었던 이성법과 혁명의 내적 연관은 그후 이성법은 자유주의자들의 수중으로, 혁명은 마르크스주의의 수중으로 양분화되었다. 언술적 법이론은 이성법과 혁명의 내적 연관을 다시 설립함으로써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대립을 지양하고자 한다. 또한 그의 입장은 근대법을 사법적 권력의 매커니즘으로 간주하는 푸코의 진단과도 대비되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둘째, 하버마스는 자유주의 전통이 강조하는 인권의 원리와 공화주의적 전통이 강조하는 국민주권 원리 사이의 대립을 지양하고자 한다. 이 지양의 핵심이 바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대립을 지양하는 의사소통적 자유이다. 그 형식에 있어서는 토론의 정치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성격을 갖는 언술 민주주의는 바로 이 의사소통적 자유의 법적 제도화인 것이다.

셋째, 언술 민주주의는 근대사회를 조직하는 주요 자원인 화폐, 권력, 언어적 연대성 사이의 새로운 3권분립을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화폐에 의해 매개되는 시장경제가 국가개입에 의하여 조절되듯이, 국가권력은 다시 언어적 연대성에 의존하는 의사소통적 권력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적 권력은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법의 타당성과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고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가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 3권분립을 통하여 하버마스는 효율성과 정당성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민주적 사회복지국가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통적 사회주의 모델의 한계를 직시하고, 탈현대론의 무정부주의적 정치기획의 위험성과 무기력성을 피하면서 자유주의의 신보수주의적 대공세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회운동의 잠재력을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적 기획으로 발전시키려는 데 관심을 두고 있



좋은 나무여야 좋은 책을 엮었듯이 …

종이가 없었던 춘추전국 시대에는 나무조각(木簡)이나 대나무조각(竹簡)에 문자를 새기고 그들을 엮어서 책(冊)을 만들었습니다. 수레 가득히 목간을 싣고 여행을 떠났다는 당시의 사상가들에게 목간(木簡)을 만들 질좋은 나무가 꼭 필요했듯이… 늘 종이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기업 — 우정지업이 여러분의 출판, 인쇄문화 창달에 큰 몫을 거들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종이공급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모조지 / 아트지 / 서적지 / 라이온 코트지 / 중질지 스노우 화이트지 등 일반용지 ●레자크, 레이드지 / 색지 밍크지 / 세미그로스지 / 엠보싱지 등 특수용지
※변규격/종이상담환영

(주)우정지업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9-22 서교진 BD 101호 Tel: 325-8162 Fax: 325-8163

WOOJUNG paper

는 사람들에게 이 모델은 매력적인 전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세련된 논증

65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는 그야말로 불필요한 말은 한마디도 없이 언술적-절차적 법 및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원리를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구도 위에서 정밀하게 입증하는 세련된 논증으로 채워져 있다. 물론 이 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선 비제도적 공론장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하버마스는 놓치지 않고 역설한다.

이 맥락에서 이 책은 국내에서 알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이 지향해야 할 규범적 지평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리라 본다. 비록 노동운동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직접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 저작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리라고 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 규모에서 형성되는 사이버 공론장의 향방에 대한 논의에서 이 저작은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역으로 그 향방은 그의 이론에 대한 검증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도 이 책은 우리를 지적으로 새로운 세기 속으로 안내한다. 이 책이 고전이라면 아마도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의 고전일 것이다. ❖

출판 포커스

보석같은 책만이 성공한다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새해는 덕담으로 시작해야 할 터이다. 그러나 그럴 겨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예의일지 모른다. 많은 나라들에서 경제적 불황에는 책이 더 잘 팔리는 현상을 보인다. 프랑스·영국·독일·일본들이 그 대표적 나라다. 책을 한 권 사서 읽는 것이 돈쓰기나 시간보내기에 가장 최소의 지출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물론 그렇지 않다. 불황의 앞줄에서 가장 먼저 불황을 맞는 것이 책이다. 그리고 이제 어느 때보다 크고 깊은 불황의 시기에 당면하고 있다. 이 불황은 전과 좀 다르다. 산업사회의 뒷부분과 정보사회의 앞부분이 만난다기보다는 얽히고 있는 불황이다.

그래서 경제적 불황이기보다는 노동양식의 변화, 고용의 구조적 축소, 새 일자리의 부재 등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직장의 불안정을 통해 가정의 불안정, 사회의 불안정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갖고 있다.

불황일 때는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진 곳이라면 출판은 호황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이는 무망한 일이다. 그러니까 불황을 이해하고, 실업을 극복하고, 다시 삶의 안정을 찾아낼 수 있는 출판을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가장 좁은 탈출구일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몇 출판사에 도움을 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출판물은 한때의 거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세상에는 '가치이동'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국경선들을 넘어 세계는 동시화(同時化)하고 있고, 따라서 모든 삶의 형식과 가치들은 쉽게 공유되어가고 있다.

> **새해는 덕담으로 시작해야겠지만 우리에게 그럴 겨를이 없다. 불황일 때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지 못했으니 불황을 이해하고 삶의 안정을 찾아내는 출판만이 남아 있는 탈출구가 될 것이다. 이제야말로 보석같은 책을 내야 하고, 이같은 책만이 또 성공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이 현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소비의 행태를 바꾸고 있다고 본다. 어떤 바꿈인가. 세계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값은 싸야 한다. 대중적인 소비자가격으로 일류제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치이동'에 출판도 들어 있다. 세계의 화제작이나 베스트셀러들을 비록 읽지는 않더라도 알게 되는 기회는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책을 가지지는 않더라도 그 책의 이미지는 살 것이다. 이 이미지화하는 복합매체적 시장에서 출판은 이제 덤핑책 내듯 한 부실함을 과감히 버려야만 하게 됐다. 책도 일류제품이어야 하고 최선의 생산품으로 경쟁에 나서야 한다.

우리 출판도 이런 시도를 할 것이다. 시공사의 '디스커버리 총서', 마루벌의 '지식의 뿌리' 시리즈, 웅진출판사의 '문제풀이 세계명작' 시리즈들은 모두 프랑스의 일류제품 갈리마르 출판사의 판들인데, 섭섭치 않을 만큼 팔리고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야말로 보석같은 책을 내야 하고, 이같은 책만이 또 성공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서점이 관심사가 되었다. 시애틀 가정집에 앉은 한 청년은 컴퓨터 서점명 'Amazon. Com'에서 책 반품률 0.25%, 1년 수입 1천만 달러라는 실적을 올렸다. 점포도 창고도 없이 단지 목록 중계의 역할이므로 30%까지 할인해줄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아직도 10여년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유통체계는 눈에 띄게 변해갈 것이다. 몇 종류 없는 소형 서점의 운영은 특히 소장목록을 개성화하지 않는 한 존속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 대형서점 역시 교통혼잡에 비례한 새로운 문제를 맞을 것이다.

유통양식의 혁신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현존 수준의 출판량이나마 소화하는 일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올해에는 실감하게 될 것이다. ❖

좋은 출판 소재나 출판 원고를 찾습니다.
출판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대행합니다.

바른 과정, 좋은 책 —
우정 미디어의 출판 대행 서비스

지은이의 출간의도를 정확하게 청취.
원고 검토 후 출간 및 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
저자와 함께 합리적 디자인 방향을 결정.
PR방향 검토와 보도자료 제작.
광고 계획서의 작성과 광고집행.
서점 진열과 판매 동향에 따른 판촉활동.
재판 발행을 위한 보완 및 수정.

(주)우정미디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9-22 서교진 BD 101호
Tel 324-9762 Fax 338-0192

WOOJUNG media